

해남군 경로당 ‘문화가 꽃피는 공간’ 탈바꿈

30여곳 어르신 400여명 참여 5월부터 문화공방 프로그램
서예교실·요가 등 다양한 건강·여가 생활도 지원 큰 호응

경로당이 건강한 여가, 문화의 꽃이 피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해남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으로 문화공방 사업을 지역 30개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4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말부터 열리고 있는 프로그램은 경로당별로 미술과 공예 등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을 선사하는 다육식물 심기와 천연향초·비누 만들기, 사각등 조명 공예, 양말목 공예, 마늘미술관

을 활용한 작품 만들어 전시하기, 실생활에 사용하는 주방용품 목공예 등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은 지역 작가 혹은 전문가가 경로당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춘 맞춤형 강좌로 진행한다.
사업에 참여한 윤모 어르신(81)은 “젊은이들이 만드는 캔들, 디퓨저가 늘 궁금했지만 직접 체험할 기회가 없었는데 경로당에 찾아오는 공방 프로그램이 열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다”라며 “치매 예방에도 좋고 경로당에서 서로 화합하며 즐겁게 생활하다 보니 저절로 건강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해남군은 문화공방 사업뿐만 아니라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9988 행복한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레크리에이션, 서예교실, 시니어미술, 북낭타 등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활력있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또 보건소 암관리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연간 경로당 177개소에 건강체조, 요가, 찾아가는 통합의료서비스 등 정신건강서비스와 의료서비스도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해남교육재단의 늘찬배달강좌로 상반기 경로당 117개소 1234명의 어르신에게 다도, 노래교실, 생활체조, 화선부(한국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생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어 무척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라며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매일 오고 싶은 경로당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어르신들이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문화공방 사업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생활소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해남군 제공>

새마을문고목포시지부, ‘찾아가는 인문학 가족퀴즈 문화골든벨대회’

60개 가족, 120명 참가 대성황

새마을문고중앙회전라남도목포시지부는 지난 19일 목포석현초등학교 대강당에서 ‘2025 찾아가는 인문학 - 가족퀴즈 문화골든벨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따뜻한 감동과 유쾌한 웃음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며 건강한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목포시의 지원과 새마을운동중앙회 문화새마을 부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됐으며, 가족 단위의 참여를 통해 독서문화 확산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대회에는 목포 지역 초등학교와 학부모가 팀을 이뤄 총 60개 가족, 120명이 참가했다. 참가 가족들은 지정도서 ‘5년 레인’을 비롯해 환경, 지역 역사, 새마을운동 관련 문제로 구성된 퀴즈를 함께 풀며 협력과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석현초등학교 학생들의 신명나는 사물놀이 공연과 방송댄스로 문을 열며 현장의 분위기를 밝고 생동감 있게 이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이 국회의원, 전남도의회 및 목포시의회 의원들, 백영자 새마을문고전라남도 지부회장, 오현석 목포시새마을회장, 각 회원단체장과 새마을 가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최고상인 골든벨상(목포시장상)은 목포삼학초



새마을문고중앙회전라남도목포시지부가 주최한 ‘2025 찾아가는 인문학-가족퀴즈 문화골든벨 대회’가 지난 19일 목포석현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등학교 4학년 조서린 학생과 어머니 강미현 씨 가족이 수상했다.
실버벨상은 두 가족이 각각 국회의원상과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상을 받았으며, 동상은 세 가족에게 목포시의회의장상이 수여됐다. 장려상은 일곱 가족이 새마을문고전라남도지부회장상, 목포시새마을회장상, 새마을문고목포시지부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박영길 회장은 “가족이 함께한 오늘 이 시간이

책을 통한 따뜻한 소통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독서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문고중앙회목포시지부는 앞으로도 책을 매개로 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독서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 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무더위 날릴 색다른 즐거움…목포해상W쇼 특별공연

26일 밤 EDM 워터밤·불꽃쇼

‘2025 목포해상W쇼’ 특별공연이 무더운 여름철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목포시는 오는 26일 오후 8시부터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목포해상W쇼 3회차 특별공연을 연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공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릴 EDM 워터밤과 불꽃쇼가 결합한 ‘엘컴 투 목포 물불쇼’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본공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 가수 ‘슬리피’, ‘비지’, ‘우씨이드’와 감성 보컬 ‘제이디’가 출연해 쏟아지는 물줄기 속에서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어 펼쳐지는 불꽃쇼에서는 짜실크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등 여름을 대표하는 케이팝 선율에 맞춰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한다.
안전한 관람환경 제공을 위한 사전 예약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목포해상W쇼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또 ▲70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보훈대상자를 위한 배려석 60석이 별도 운영된



다. 증빙 서류를 지참한 대상자는 공연 당일 오후 5시부터 현장에서 입장권을 교환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해상W쇼 특별공연으로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희망한다”라

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무안군, 몽탄 다산 등 4개 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5000여 필지 디지털 지적 전환

무안군이 몽탄면 다산리를 비롯한 4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등록·정리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중

의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사업을 완료한 지구는 ▲몽탄다산 ▲현경동산2 ▲해제유월1 ▲운남동암1 등 4곳으로 2023년 8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 소유자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및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

료했다.
무안군은 이번에 4개 지구 5029필지(473만 4331.6㎡)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함에 따라 2012년부터 총 32개 지구 2만 6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최영인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모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완도군, 다라지도 등 도서 34곳 생태계 점검

훼손·불법 시설물 설치 등 엄단

완도군이 지역 특정도서 34곳의 생태계 보전 관리를 위해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 대상은 ▲금일읍 13개 섬(다라지도, 대병봉도, 소다랑도, 대철기도, 중철기도, 소철기도, 비도, 송도, 소사도, 대사도, 안매도, 대마도, 흰여) ▲노화읍 5개 섬(잠도, 장구섬, 문어복도, 문어남도, 가덕도) ▲신지면 3개 섬(진섬, 혈도, 갈마도) ▲고금면 1개 섬(원도) ▲약산면 1개 섬(섬어두지) ▲정산면 1개 섬(불근도) ▲금당면 3개 섬(제도, 중화도, 소화도) ▲보길면 1개 섬(북생도) ▲생일면 6개 섬(형제도, 형제도1, 송도, 매물도, 소덕우도, 구도)로 총 34곳이다.

특정도서는 환경부가 자연 생태계, 지형, 지질 등이 뛰어난 무인도를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관리하는 섬 ‘으로 야영은 물론 야생식물 채취행위도 제한된다.
완도군은 이번 점검에서 섬 생태계 훼손과 환경오염 발생 여부, 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위남환 완도군 환경수질관리과장은 “특정도서 내 불법행위로 자연 훼손의 우려가 커서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정도서의 생태계 보전에 지역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지도전갈타은 골목형상점가.

신안 대광해수욕장 등 5곳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비촉진·상권 경쟁력 강화 기대

신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광해수욕장, 압해읍 중심지, 자은면 구영길, 지도읍 송도수산물판매장과 젓갈타운 일원 등 5개지역, 94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기존 ‘2000㎡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였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10개 이상 점포’로 완화해 이번 5개소 동시 지정이 가능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활기찬 상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 섬 여행하고 경품 받자

10월까지 7개섬 스탬프 투어

네이버페이 5개 이상 5만원권

완도군이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10월 31일까지 ‘치유 페스타 섬 스탬프 투어’를 실시한다.
섬 스탬프 투어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모바일 앱 ‘스탬프 투어’를 설치한 후 ‘완도 치유 페스타 섬 스탬프 투어’를 선택하면 된다. 금일읍, 노화읍,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등 7개 도서 중 1곳 방문

시 스탬프 1개를 획득할 수 있다.
GPS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인증되며 인증 후 이벤트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스탬프 1개 이상이면 네이버페이 1만 원권, 3개 이상은 3만 원권, 5개 이상은 5만 원권을 매일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완도군은 여행 경비 최대 21만원을 지원하는 “완도 치유 페이”와 무료 사진 인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는 섬마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섬 여행하기에 좋은 곳이다”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